오늘날의 레닌들 ③ —지젝의 레닌

강좌취지: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은 맑스의 책을 다시 꺼내들고, 대안적 전망에 다다르는 구체적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레닌을 찾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폭압적인 정권의 만행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극히 중요해진 지금의 현실에서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 속에서 가능한 실천을 치열하게 모색한 레닌**을 다시 불러내는 일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지원에서는 레닌을 바라보는 각 사상가들의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레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 '지젝의 레닌'은 위의 강좌취지에서 묘사한 레닌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강좌취지에서 레닌은 좌파진영의 일반적 레닌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라는 구체적 역사 조건(특수성)에 착근할 수 있었던 이론적 행동가이자 실천적 이론가로서의 레닌….

지젝은 라깡의 행위(act) 이론의 맥락에서, 또한 헤겔의 보편-특수 변증법의 맥락에서 레닌의 실천 행위를 파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레닌의 행위는 '가능한 실천의 모색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위이며 이러한 것만이 진짜-행위(real-act), 혹은 실재의 행위(the act of the Real)이다. 행위는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가를 판단하는 우리의 현실 좌표 자체를 바꾸어놓는다.

요즘은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적극적 행위에의 요청에 마치 강박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지젝은 가능한 무엇인가(대안?)를 쳇바퀴 돌듯 행함으로써 혁명적 변화를 오히려 유산시키는 이른바 '사이비-행위들'로부터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한다. "학습하라, 학습하라 그리고 학습하라!" ('행동으로의-이행'과 바틀비의 정치).

지젝의 레닌: 강의 인용문들

▶ 한보희 옮김, 『전체주의가 어쨌다구?』(새물결, 2008)

사드와 함께 칸트를Kant avec Sade이라는 라캉의 표어가 혁명적 정치상황에서 그 대위 선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스탈린과 함께 레닌을***Lenin avec Stalin*이 될 것이다—레닌의 혁명적 주체가 큰 타자의 향락을 위한 도착적 대상-수단으로 변해버리는